

“추운데 고생 많아요” 시 방역초소 찾아간 윤병태 나주시장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 공산면 육용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10km 이내 반

거점소독시설 및 축산 차량 주요 길목 소독 통제 초소 운영 농장입구까지 통제 초소 설치...41개소 공무원 긴급 근무

남, 동강 지역 가금농가 5곳(육용오리4·산란계1)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대응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3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AI 특별방역대책 관계기관 합동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AI 원인 진단에 따른 특단의 방역조치를 강구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가금류 계열사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발생현황

보고, 원인분석, 향후 방역대책 추진 등에 머리를 맞댔다.

윤 시장은 AI 선제적인 차단을 위해 계열사의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계약농가에 대한 꼼꼼한 방역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또 축사 출입 시 출입자 및 출입장비 소독 미흡, 2단계(고압분무) 차량 소독 및 대인소독 미비, 하나의 작업복으로 모든 축사 출입 등을 잠정적인 AI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특단 방역조치로 시는 오리 사육농장 입구 통제초소 설치, 주요 지점 축산 차량 소독·통제초소 추가 설치, 드론·소독차량 등 소독지원 총동원, 산란계 밀집단지 방역 강화, 축사 1일 일제소독 시간 지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재 축산차량 소독 필증을 발급하는 거점소독시설(왕곡·산포) 2곳을 비롯해 공산, 반남지역 농가 진·출입 도로 지점 5곳에 축산차량 소독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농장 입구 통제초소 41개소에 시청 공무원을 투입하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사료차량, 가족출하차량, 왕겨차량, 농장운영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소독 필증 발급

여부 확인과 미확인 차량·인력 진·출입 통제, 일 2회에 걸친 축사 일제소독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4일 왕곡·공산 지역 오리농가 입구 통제 초소를 방문해 초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식과 핫팩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시장은 “부쩍 추워진 날씨로 인해 직원들이 많이 고되겠지만 순간의 방심이나 안일함으로 방역 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차량, 인력 진·출입 확인과 통제에 철저를 기해줄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연말연시 다가오며 어려운 이웃 위한 모금활동 적극 독려

실과장 정책토론회에서 지시

구례군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독려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김순호 군수는 5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23 희망나눔캠페인 및 적십자회비 모금 등 적극적인 이웃돕기 참여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적극적인 이웃돕기를 포함하여 상수도 등 생활민원 불편함이 없도록 겨울 한파 대비, 연말 공직기강 확립,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 점검 철저 등 꼼꼼한 현안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지역 내 나눔·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이를 통해 모여진 성금은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계획이다.

먼저 희망2023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을 통해 구례 군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 모금 목표액은 작년 2억

1천여만 원에서 10% 상향 된 2억 3천여만 원으로 2023년 1월 31일까지 모금을 진행한다.

또한 구례군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을 추진하여 따뜻한 구례 분위기를 조성해 바치를 가할 예정이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연중 추진하며 2023년 1월 31일까지 집중모금 기간이다. 목표액 3천9백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대주 1인당 1만 원을 고지하여 모금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례군은 성공적인 모금활동을 위해 유관기관·단체별, 마을단위 모금을 추진하고, 읍면 LED 전광판 게시 및 이장회의·기관단체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나간다.

김순호 군수는 “모금활동을 통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모두가 행복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성료

골프체험 시작 클라이밍 체험 콘텐츠 지원 ‘호응’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스포츠 체험활동은 문화 체험 활동 기회가 적은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집중력

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골프체험을 시작으로 이달 3일에는 클라이밍(실내 암벽등반) 체험 콘텐츠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골프체험은 학생들이 프로 골퍼의 지도를 받아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이다. 초심자가 갖춰야 할 골프의 기초를 익히고 스크린 골프 체험으로 열띤 반응을 얻었다.

클라이밍 체험은 전문 강사의 강습으로 이론과 기본기를 배우고 인공암벽 오르는 활동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참여 학생들은 실내 암벽등반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 청소년은 “평소에 꼭 보고 싶었던 스포츠 체험활동으로 새로운 분야의 도전이 즐거운 체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체험활동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이 수업에 빠져 즐기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청소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곡성군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 감면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가계경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며 감면액은 월 사용요금의 50%다.

대상자들은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담양군,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사 수출상담회 개최

전남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판매장과 지역 농식품 업체 소통... 판매 다각화

담양군은 지난 5일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사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농식품 업체와 해외 바이어 상담을 통한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는 전남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 6

개 운영사(크리에이티브, 네시피, 키트레이딩, ㈜골든힐, 푸드코리아, JHE글로벌) 대표가 참석해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별 사업 소개와 입점 상담, 현지화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담양군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지역 내 우수한 농식품 업체의 해외 상설 판매장 입점 지원

과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유통 다각화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농식품의 수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병호 담양군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농식품 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한 지역 농식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새로운 유통처 확보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